9

학술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한 문헌정보학의 과제

박 홍 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목차

1. 서 론
   가. 지식기반사회 의미
   나. 지식기반사회와 도서관
   다.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2. 국내 학술정보 유통 현황
   가. 학술자료 보유 현황
   나. 학술자료 전산화 현황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 현황
3. 학술정보유통의 문제점
   가. 정보자원 기반
   나. 전산화 기반
   다. 제도기반
   라. 사회문화 기반
4. 문헌정보학의 과제
5. 글을 마치며

1. 서 론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하나의 순간인 소위 21세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어떠하던지 간에 현재 가장 많이 회자(膾炙)되고 있는 것이 지식기반사회다. 정보화사회라는 개념이 현대사회와 미래 사회의 형태인 것처럼 말하여진 것이 최근의 일이고 보면 사회의 변화는 매우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형태의 것인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할 것인가 등 지식기반사회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혹은 사회가 지식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유지와 발전이 힘들다면, 지식기반사회가 어떤 특성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무엇을, 특히 학술정보 유통을, 어떻게 준비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학술정보 유통에 관해 고찰해 보고, 정보유통의 핵심적인 학문분야로서 문헌정보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관점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발간 예정인 "2000 교육정보화백서"와 구 첨단학술정보센터가 발간한 "기식기반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국가 학술정보 공유체제에 관한 연구" 중 저자가 집필한 부분을 이용했음을 먼저 말해 두고자 한다.

가. 지식기반사회 의미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이 현재의 중요한 자원인 노동이나 천연자원보다 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빠른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Stock, J. et. al. 1998). 그리고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의 개념을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지식기반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OECD 1996). 이러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보화사회와 지식기반사회의 개념 차이를 정리해 보자.

정보(실제의 의미는 문헌)는 근본적으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것이므로 이의 목표는 전달이다. 그러므로 정보화라는 것은 정보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라는 것도 정보의 수집, 처리, 확산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전달을 위한 기반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를 이용해 새로이 만들어진 사람의 의식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기반이라는 것은 정보의 이용과 이를 통한 지식의 형성, 그리고 형성된 지식의 행동을 통한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개인과 사회의 혁신이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이다. 즉 사회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정보의 이용을 통해 형성된 지식에 의해 사회가 움직이고 구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The concept of knowledge-based society opens up a new perspective for viewing and contemplating

> modern society by giving knowledge center stage as the shaping force behind human action and concomitantly, behind society. This offers greater potential for explanations than the concept of the information society which, as mentioned, is the more recent concept. The concept of the information society refers primarily to information(which is not dependent on people) and to the means of information technology(Stock, J. et. al. 1998, 8).

지식은 사람 행동의 근원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지식을 "ability to act at a social level"이나 "prerequisite for purposeful and meaningful social action"이라고 하는 정의를 통해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다(Stock, J. et. al. 1998, 7). 사람이 지식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사회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전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그리고 사회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좌우된다는 의미로서 지식 그 자체가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회의 문화, 제도, 기술 등 모든 것이 지식의 결정체인 것이다.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혁신시킨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 그 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지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혁신시킨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고, 형성된 지식을 공유하여 이를 개인과 사회의 행동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여 다시 이를 공유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 사회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이다. 가치 있는 지식의 형성과 공유를 통한 끊임없는 사회의 혁신이 하나의 사회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지식기반사회의 의미인 것이다. 물론 지식기반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지식이라는 자양분을 소비하는 사회의 신진대사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신진대사가 멈추면 지식기반사회라는 생명체는 유지될 수 없다.

나. 지식기반사회와 도서관

지식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다. 정보화사회는 정보의 전달에 중점을 두었고, 정보를 이용하여 생산된 가치 있는 지식을 사회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여 그 사회를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지식기반사회이기 때문에 정보화는 지식기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자원의 확충, 정보의 빠른 전달, 정보를 이용한 가치 있는 지식의 창출, 창출된 지식의 정보자원으로서 빠른 전달은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을 바라보자.

도서관 서비스는 실물 장서, 전산화된 목록, 디지털자료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이용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적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이 필요치 않다거나, 혹은 도서관의 물질적인 모습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

관과 사서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장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많은 학자들이 2000년도에는 종이가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실물의 도서관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2000년 현재 이 예측은 완전하게 빗나가고 말았다. 현재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술정보가 인쇄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외국 학술지의 경우 약 4,000종 정도가 전자저널로 인쇄본과 병행하여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최소 130,000종이라고 추정되는 학술지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전자저널이 핵심 주요 학술지라는 증거는 더욱이 없다. 특히, 순수 전자저널 형태의 학술지가 성공한 예는 1-2개에 불과하다는 것과 이 학술지가 전통적인 학술지보다 권위가 없다는 것은 20년 전의 예측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도서의 경우 더욱 심하고, 인쇄본의 신문과 잡지는 유료로 판매되고 있으나 인터넷 신문과 잡지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인쇄형태의 유통이 아직도 주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형태의 유통이 자리잡지 못하는 까닭은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인쇄 형태의 정보유통과 실물장서가 정보서비스의 주를 이루고있다면 아직은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전통적 형태의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도 디지털혁명을 외치는 다수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일 뿐 현실 혹은 당장 다가올 현실은 아니다. 정보서비스는 현실이다.

정보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보자. 인터넷 검색 결과의 효용성 혹은 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논의를 생략하겠다. 지식기반사회의 의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양질의 정보를 이용한 가치 있는 지식의 창출이다. 전통적인 목록정보서비스의 범위가 기관과 국가의 범위를 넘어 국제의 범위로 확장된 현실에서,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가 수없이 많아 검색조차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통한 수서, 즉 가치 있는 정보자원의 발굴이라는 것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개별 이용자의 특성과 문제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가공하는 일 또한 중요한 것이다. 물론 현재 국내 도서관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충실하고 있는 가는 논외로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그리고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도 도서관은 정보유통의 중심에 서야 한다.

다.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분야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나올 정도로 학문의 정체성이 취약한 문헌정보학이다. 문헌정보학은 정보의 생산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해보자. 물론 이러한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수단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수단은 과정과 목적은 아니다. 정보의 유통의 전 과정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도 정보의 유통에 중심에 서야할

도서관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학문이 다가올 미래에 관한 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 일이 언제쯤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도 당연히 연구해야 하는 것이고, 더구나 현실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현실 그 자체가 주된 연구가 되어야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의 위기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학술정보 유통현황과 학술정보유통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업현황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진단해보고, 문헌정보학이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해야할 과제를 제안하겠다.

2. 국내 학술정보 유통 현황

학술 및 고등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학술정보다. 양질의 학술정보서비스는 소위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고등인력의 양성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지식의 생산에 기본적인 원재료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국내 학술정보 유통 전체 현황을 다루기는 힘들고 대학도서관 및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다루어 봄으로써 전체의 현황을 짐작해 보고자 한다.

가. 학술자료 보유 현황

학술·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교육 및 연구 현장에서 정보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대학교육 및 학술·연구 정보서비스의 주체인 국내 대학도서관의 학술자료 보유 현황은 정보유통 역량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 지표다.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양과 질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속간행물의 신규 구독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행본의 구입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도서관의 자료 보유 현황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영문으로 발간되는 서적은 약 17만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Books in Print) 비해 국내 대학도서관의 신규 외국서적 구입 양은 미미한 편이다. 우선 '96년에서 '97년 사이의 외국단행본의 증가분은 평균 7,043권이고, '97년에서 '99년 사이 2년간의 외국단행본의 증가분은 7,200여권으로(2000년 교육부 정보화현황 조사), 외국단행본의 증가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 연속간행물은 '96년 평균 보유 종수는 529종, '99년 평균 보유 종수는 633종으로 전세계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의 추정치가 13-23만종인 것을 감안할 때 개별 대학의 학술지 보유량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국내 대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 학술지의 전체 종수는 25,000종이고 구독중인 학술지는 15,000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모

든 대학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 종수는 영국의 BLDSC(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er) 단일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48,500종의 학술지에 비해 30% 수준도 되지 않는 것이다. 국내 최다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학생 1인당 장서수는 81권이고, 하버드대학 701권, 동경대 279권, UCLA 170권 등이다. 그리고 소장 학술지 종수는 하버드대학의 1/33, 동경대학교의 1/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전체 대학도서관이 보유하거나 구독하고 있는 외국 자료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외국학술자료의 부족은 만성적인 예산부족과(평균 자료구입비가 5.75억으로 미국 ARL 소속 도서관의 10%미만), IMF 이후의 외국 학술지 구입단가의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중복이 필요치 않은 장서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구매되고,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의 공동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대 효과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나. 학술자료 전산화 현황

제2차 국가전자도서관 연계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백선, 구한국관보, 조선총독부관보,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 관련 기관 발간 자료에 대한 텍스트 및 이미지 구축, 국회도서관의 국정감사 결과, 국회의장 발언, 정부 간행물, 입법부 발간자료에 대한 원문(SGML) 구축, 법원도서관의 법학, 민사법학, 변호사, 사법 행정 등의 자료에 대한 SGML 처리, 연구개발정보센터의 한국DB학회, 한국통계학회, 지리학회 논문지에 대한 서지 및 원문(SGML) 구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한수학회논문집, 대한수학회지, 대한수학회보에 대한 서지 및 원문 구축, 산업기술정보원의 산업기술 분야 잡지(기관지, 동향지, 학회지)에 대한 서지 및 원문(SGML) 구축,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의 KAIST 학위논문, 연구논문에 대한 원문(SGML) 구축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 대학도서관에서는 학술자료를 전산화하는 많은 계획이 수행 중에 있다. 우선 학위논문을 생산하는 100여개의 대학 중 상당수의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위논문을 전산화하고 있거나 계획중에 있다. 전산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저작권 관리인데 소수의 대학만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학위논문 및 기타 학술자료의 공유를 위해서는 제공되는 원문의 형식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대학도서관은 PDF, TIFF, XLS, DVI 등 다양한 형식을 채용하고 있어 효과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실적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회총람에 의하면 국내에는 약 1,300개의 학회가 있고, 이 보다는 많은 수의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다. 학술지의 디지털화는 저작권의 소유자인 학회와 저작권에 관한 협약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상업기관이 일부(약 300여종)를 DB로 구축하여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KORDIC,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정보서비스 기관이 학술지의 일부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적인 DB 구축 현황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겠지만 50% 미만일 것으로 본 저자는 추측하고 있다.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 및 학술연구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술연구 부분은 대학 및 대학도서관이 사업의 주된 대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업을 간단하게 다루어 봄으로써 대학에서 학술정보의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업목표는 대학도서관을 기반을 전국 학술연구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목록구축(도서종합목록, 학술지 권호소장정보 종합목록, 기사색인 통합목록 구축), 원문DB 구축(석박사 학위논문, 대학간행물, 학술지, 기타 세미나 및 회색자료), 주요 해외학술DB 서비스, 해외학술DB 공동구매가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업 현황은 다음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3. 학술정보유통의 문제점

정보의 생산부터 수집, 축적, 제공, 이용, 지식 생산까지 정보의 유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유통의 대상이 되는 양질의 정보자원의 확충을 위한 기반,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화에 관한 기반, 정보의 수집부터 지식의 생산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 정보의 이용과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기반이 필수적이다. 이 4

〈표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DB 구축 현황

사업내용	구축현황	참여기관
도서종합목록	540만건	200개교
학술지목록	250만건	36개 도서관
학위논문	24,700건	17개교
학술지논문	570개 학술지	
상호대차		110개 기관

〈표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해외학술 DB 공동구매 현황

구분	1999년	2000년	
		상반기	하반기
참여 대학	38	15	74
구매 DB 종수	7종	18종	37종

개의 기반 중 어느 한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의 유통에 병목현상이 초래되어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기반이 정보유통에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융화되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기반이 취약하다면 각종 기술과 제도가 사회에 수용이 되지 않을 것이고, 기술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면 정보유통기술이 제도로 정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4개의 기반을 중심으로 국내 학술정보 유통의 문제점을 다루어보고 문헌정보학의 과제도 이에 맞추어 생각해보자.

가. 정보자원 기반

정보자원의 기반이라는 것은 유통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관한 문제다. 이것은 정보서비스 기관이 정보서비스를 위해 얼마나 많은 양질의 정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가와 함께 기관 외부의 자원을 서비스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즉 제공 가능한 정보자원의 범위에 관한 문제다. 국내에 외국 학술정보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이미 간략하나마 앞에서 예시를 하였다. 개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정보자원 또한 부족하다. 국내 대학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국내 학술지는 평균 943종으로, 구입에 의한 것이 313종, 수증에 의한 것이 630종이다. 국내 1,300여개 학회, 200여개의 4년제 대학에 소속된 부설연구소, 대학 외 연구소, 기타 대학도서관이 수집하고 있는 연속간행물을 발간하는 기타 기관 등의 수를 감안하면, 현재 대학도서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학술정보도 충분하게 소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대학에서 연간 생산되는 약 40,000건의 학위논문은 개별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낮을 것이다.

개별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정보자원이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학술정보의 공동이용이다. 우선 상호대차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10개 대학도서관, 광주과학기술원 약 80여개 대학도서관, 그리고 지역별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약 350개의 4년제 대학도서관과 2년제 대학도서관을 감안한다면 양적으로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기관 역량 부족으로 인해 상호대차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부족한 정보자원이나마 공동이용하여 정보제공의 범위를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나. 전산화 기반

정보를 찾고, 원하는 정보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하고, 정보를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가공하고, 그리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산화는 정보유통의 효율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이는 목록 및 원문 DB 구축, 이를 공유하기 위한 통신체계 등에 연관된 기술 및 이에 연관된 표준이다. 현재 대학도서관의 전산화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도서목록의

구축의 경우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연속간행물의 경우 약 180개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8 대학도서관정보화현황, 교육부).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목록의 전산화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질적인 평가는 없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업 진행 중에 노출된 목록의 질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을 생산하는 100여개의 대학 중 45개 대학이 원문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중인 것으로 199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학위논문을 서비스하는 형식은 TIFF, PDF, XLS, DVI 등 다양하다. 특히 TIFF의 경우 목차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viewer로 다른 대학의 학위논문을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전산화의 문제점은 개개의 대학도서관별로 데이터의 공유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되어 표준화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전산화기반은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에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다. 제도기반

학술정보유통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은 크게 법, 기관간 협력을 통해 시행되는 제도, 기관 내의 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학술정보유통 관련 법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저작권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이 학술정보 유통의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면은 따로 연구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학술정보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금전적 지원제도,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대학도서관 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지원금 등도 학술정보 유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학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제 또한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지식의 효과적인 이용과 생산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 생산된 지식을 평가하는 공정한 제도, 정보자원을 확충하거나 공동이용하기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 표준화된 기술의 개발과 이의 보급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 학술정보유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례화, 구체화, 공식화, 체제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정보유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납본 제도와 저작권관리 제도다. 현재 인쇄본 납본에 관한 법은 있으나 디지털저작물 납본에 관한 구체적인 법은 없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디지털저작물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술정보의 유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정보자원의 수집이다. 대학 학위논문을 대학도서관 혹은 대학원에 제출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다수 있으나, 디지털 형태의 학위논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 더구나 대학부설연구소 등에서 생산되는 저작물에 대한 제출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개별 연구소를 공식적으로 통제할 권한이 대학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술정보의 유통을 위해서는 저작권의 관리가 필수적인데 학위논문 배포권을 관리하여 제공하고 있는 대학은 18개로 파악되고 있다.

효과적인 저작권 관리, 학술정보자원의 국가자원으로서의 관리, 학술정보자원의 공유, 표준화된

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학술연구정보의 생산, 제공, 공동이용 촉진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협력체제의 구축 없이 정보자원 기반과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 사회문화 기반

학술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문화기반은 다음과 같이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회 환경이다.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각급학교의 교과과정은 암기식, 교과서 위주, 특정 자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서관을 통한 정보의 탐색과 이용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양질의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크게 구분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학술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장치가 없다. 있다면 ISI의 인용 분석을 통한 평가가 전부인 형편이다. 둘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높아야 한다. 이는 정보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지식으로 이어지게 하는 전반적인 능력(information literacy)에 관한 것이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예를 들자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셋째, 정보 혹은 도서관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이다. 물론 현재까지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이로 인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정보의 이용이 필수적인 것이 아닌 사회환경의 영향일 수 있다. 넷째, 개별 조직의 문화가 정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의 구입, 유료정보서비스의 이용 등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많은 사회문화적 요소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정보의 요구,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상호대차에 관한 통계는 정확한 것이 없지만, 상호대차가 활발한 의학도서관협회 상호대차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상호대차 통계를 통해 학술정보의 공유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측해 보자. 의학도서관협회 통계에 따르면 기관당 연간 평균 약 1,00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참여하고 있는 110개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최근의 데이터로 추측한다면 연간 평균 600건 정도 이루어진다. 이는 미국 ARL 도서관의 평균치인 43,000건에 비해 매우 적은 수다. 이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ARL 도서관에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료가 적은 대학도서관이 상호대차 이용량도 적다는 것은 큰 모순으로 보인다. 정보의 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갖추어 졌다면 정보자

원이 적은 국내의 대학에서 정보자원이 많은 미국의 대학보다 정보의 이용이 적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4. 문헌정보학의 과제

앞에서 다루었던 4개의 기반이 정보, 특히 학술정보의 유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정보유통의 전반적인 것인 학문의 주제로 삼아야 하는 문헌정보학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영역인 것이다. 현재 국내에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문제를 문헌정보학이 해결해야만, 최소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 현실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학문분야가 될 것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4개의 기반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편리상 이를 구분해 설명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헌정보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가지를 예시해 보겠다.

학술정보의 확충과 공동이용 범위가 정보서비스의 한계를 결정짓는다고 했을 때 이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다. 우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학술정보의 현황에 관한 것부터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정보서비스 기관별로, 학술정보 종류별로, 학술정보의 형태(도서, 비도서, 디지털원문 등)별로 생산현황, 이용 및 요구현황, 공동이용 현황 등과 함께 변화의 추이도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에 관한 제언이 있을 수 없으며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책과 함께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논리에 대응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특히 현재 많은 해외 학술서지DB가 수입되고 있다. 이를 구매하는 대학도서관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이를 평가할 도구도 이에 대한 수서 정책도 없는 상황이다. 문헌정보학이 순수하게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학술정보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최소한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은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의 요구와 이용을 가로막는 요소는 많다. 앞서 예시했던 학교와 대학의 교과과정, 평가제도, 정보와 도서관의 인식의 문제 등 문헌정보학이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는 많다. 예를 들어 대학의 교과과정 등의 문제는 교육학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이 도서관과 정보의 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과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교육계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면 문헌정보학은 타 학문분야에 대한 기여 없이 그들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빌려쓰는 학문분야밖에는 되지 않는다. 사회의 문화, 조직의 문화, 구체적으로는 학술논문 및 학술지 평가, 대학교수 및 연구자의 평가 등 도서관과 정보의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현장의 관점에서 문헌정보학은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의 유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필수적인 사회문화적 기반이다. 문헌정보학이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인력이 충원되고 있지 않은 대학도서관의 인력의 재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주제전문분야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도서관의 요구에 발맞추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많지 않다. 몇편의 이론적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앞의 3개의 예시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앞서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낮은 인식상태에서 정보, 특히 학술정보의 유통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낮은 인식의 요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낮은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학술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문헌정보학이 수행해야할 과제는 많다. 정보유통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낮으면 왜 낮은지, 대학도서관이 좀 더 많은 정보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현장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정보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정보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동이용이 낮다는 모순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용자의 정보요구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모델은 무엇인지, 왜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이용을 회피하는 것인지, 양질의 DB 구축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학술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제공, 이용,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의 근본 원인인 일부의 학자가 주장하듯이 도서관 현장을 버리고 난 후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문헌정보학은 도서관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DB 구축, 디지털도서관, 전자출판, 인공지능형 검색 등 미래의 최첨단 형태의 도서관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로서 해결될 수 있다면 문헌정보학은 필요 없다. 기술을 다루는 학문분야가 따로 있고 그들의 기술적인 능력은 문헌정보학보다 탁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보의 생산부터 이용 및 재생산까지의 정보의 유통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문헌정보학이 다루어야 할 정보유통의 모든 문제가 기술적인 도구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혹은 정보통신기술 이외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없다고 믿는 것일 뿐이다.

5.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아닌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상당 부분은 시간상의 문제로 모든 것에 대한 인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자의 게

으름을 탓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쓴 것이다. 저자는 학술정보 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실제적을 수행하는 실무자다. 이러한 것들은 저자 개인의 경험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헌정보학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된다.

문헌정보학의 많은 연구가, 그리고 문헌정보학과의 많은 과목이 정보기술과 디지털도서관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문헌정보학은 정보유통에 관해 다루어야 할 주제와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는 정보유통에 필요한 도구에 관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도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도달할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해야하는 것이지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관한 연구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술정보 유통의 활성화와 대학도서관의 부활이라는 것이 올라야 할 산의 정상이라면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 전략, 산의 환경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산을 오르기 위한 등산도구의 사용법은 정확하게 알아야겠지만 그 등산도구 자체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문헌정보학은 아니다. 도리어 그러한 도구를 정상의 정복을 위해 이용하는 분야로서 조언을 해야하는 학문분야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첨단학술정보센터. 1999. 지식기반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국가 학술정보 공유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발간 예정). 2000 교육정보화백서.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http://www.arl.org/stats〉

OECD (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Stock, J. et. al. (1998). Delphi Survey 1996/1998: The Potential and Dimensions of Knowledge-based Society and Its Effects on Educational Processes and Structures: Combined Final Report.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Technology.